

우도환 “어떤 것 ‘선’ 인지 ‘악’ 인지는 정하기 나름”

영화 ‘사자’ 열연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각자의 신념만이 있을 뿐이다. 신념은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림 같은 것이다. 이에따라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한다.

31일 개봉하는 영화 ‘사자’에서 우도환(27)은 악을 퍼뜨리는 검은 주교 ‘지신’ 역을 맡았다. 선과 악을 오가며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식으로 연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을 무조건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따지고보면 사람은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을 한다. 지신 역시 그렇다고 봤다.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는 정하기 나름이다. 자신은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고, 그걸 위해 싸운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지닌 격투기 챔피언 ‘용후’ (박서준)가 구마 사제 ‘안 신부’ (안성기)를 만나 강력한 악에 맞서는 이야기다.

자신의 극중 캐릭터를 “성장기에 힘들었을 것 같은 존재”로 봤다. “지신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악의 쪽으로 이끈다. 그 부분이 많이 공감됐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누군가를 찾는다. 타인이 손을 내밀어주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다. 그 점을 노린 게 지신이다. 자신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면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공감할 것 같다.”

배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악의 존재를 향해 자신만의 의식을 치른다. 하지만 안 신부와 용후 때문에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그들의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며 파괴력을 보여준다.

강렬한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화 막바지에 뱀의 표피와 비슷한 형상의 몸도 선보

인다. 촬영 때마다 5~7시간에 걸쳐 특수분장을 했다. “특수제작한 실리콘 재질의 슈트를 몸에 부착했다. 특수분장을 때는 대만 1시간 정도 걸렸다. 이걸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도 봤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신과함께’ 시리즈(감독 김용화, 2017·2018)의 텍스터 스튜디오가 CG 작업을 맡았다. 지신이 악의 힘을 발휘할 때 피부가 오색으로 빛나고, 눈은 붉게 변한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와이어를 이용해 한층 사실적인 액션을 표현하려고 했다. 관객들의 판타지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도 선사할 것이다. 캐릭터 분석도 그런 쪽으로 갔다. 의상이나 분장도 일부러 어둡게만 하지 않으려고 했다.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줬다. 처음으로 앞머리를 올렸다. 화려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했다.”

‘사자’로 스크린 첫 주연을 꿰찼다. 영화 ‘안 내건’ (2016) ‘창년경찰’ (2017) 등을 연출한 김주환(38) 감독의 신작이다. 김 감독에 대해 “배우를 많이 믿어왔다. 알아서 맡겨주고, 더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연기적으로 빨간색을 준비해갔으면 파란색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다. 짙은 빨강 또는 옅은 빨강의 디렉션을 줬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싶을까. “좋은 사람들과 멋진 작품을 많이 하고 싶다. 캐릭터를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인간 우도환으로서의 감정을 느낀다. 연기할 때는 극중 인물의 감정으로 산다. 영화가 완성되거나 드라마 방영이 시작되면 그때 제일 많이 심장이 뛰는 것 같다. 연기의 매력은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면이 많다. 사람들이 늘 지켜보고 싶어하는 배우이고 싶다.”



드라마 ‘검법남녀’ 시즌3 나오려나

자체 최고시청률 피날레

MBC TV 월화드라마 ‘검법남녀’가 자체 최고시청률을 갈아치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9일 방송한 ‘검법남녀’ 제31·32회는 전국평균시청률 8.3%(31회 6.7%·32회 9.9%)를 기록했다. 23일 29·30회의 8.3%(29회 7.1%·30회 9.5%)와 같다. 그러나 마지막 32회가 9.9%를 찍으면서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방송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 ‘장철’ (노민우)과 검사 ‘도지한’ (오만석), ‘갈대철’ (이도국)의 공방전이 그

러했다. 장철과 도지한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갈대철이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총에 맞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장철의 범행 증거물들을 발견한 법의학자 ‘백범’ (정재영)이 백범 주사기의 수상한 흔적을 봤다. 법의조사관 ‘한수연’ (노수나)이 누군가 거짓 증거를 심은 이유를 묻자 백범은 “질문이 틀렸어. 누가 그랬을까?”라고 답해 아직 끝나지 않은 백범, 갈대철, 장철의 추격전을 예고했다.

쿠키 영상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장철이 변호사가 된 도지한과 함께 나와 ‘검법남녀3’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라이언킹, 왕좌에서 내려온다

예매율 사자 1위 · 엑시트 2위

31일 개봉하는 영화 ‘사자’의 ‘엑시트’가 예매율 1, 2위를 차지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자’는 30일 오전 9시 기준 예매율 19.6%를 기록했다. 예매관객수는 11만6240명이다.

‘사자’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격투기 챔피언 ‘용후’ (박서준)가 구마 사제 ‘안 신부’ (안성기)를 만나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예매율 2위인 ‘엑시트’도 ‘사자’에 뒤지지 않는 기록을 보였다. ‘엑시트’



의 예매율은 19.3%로, 11만4227명이 예매했다.

‘엑시트’는 백수 ‘용남’ (조정석)이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동아리 후배 ‘의주’ (임윤아)를 만나고, 온 도시에 퍼진 갑작스러운 유독가스를 피해 탈출을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재난 영화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띠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형통하다.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으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애정 면에서는 6, 7, 10월생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빠진다. 부부는 일심동체인 만큼 화합해야 한다. 건강에 각별한 신경 쓸 것.



▶소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좋겠다. 직장인은 중책을 맡아 힘에 겹치면 결국 책임을 완수하는 능력 발휘의 날. 오후에는 휴먼을 친다. 가정주부는 오늘 모든 일이 갈등의 연속이다. 아무리 급해도 손리를 따라야 할다.



▶범띠
산 너머 산이다. 잘 풀리던 일도 갑자기 막혀서 답답하고 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겠으나 동료나 친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한다. 원치 않는 일에 개입되어 신병 앓을 수. 남쪽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토끼띠
진실이 부정을 물리치니 모든 이에게 칭송을 듣는다. 목욕한 성품을 잘 활용해서 원 위치를 변동없이 잘 유지해 나감이 좋을 듯. 동쪽의 사, x, x 성씨가 힘이 된다. 혼자서 고민 말고 친한 이와 의논해서 해결함이 좋을 듯.



▶용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빛이 보인다. 더욱더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겠다. 좌절하지 말고 진진해야 대길. 행운의 피란색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늘 아주 멋지게 보일 것이다. 타인을 이용하려면 돈이 든다. 결국 지출이 커지니 명심할 것.



▶뱀띠
상대의 눈치를 보아야 승부수를 찾을 수 있다. 나를 바로 알고 남을 판단할 것. 욕심을 버리고 덕을 베푸는 것은 정래를 위한 지극과 같으니 유념하라. 기, 오, x 성씨는 적색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일을 만든다.



▶말띠
인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다. 곧 퇴직양단에 놓인다. 슬기로운 지혜가 절실하다. 경계망동은 금물. 신중한 처세로 극목함이 좋겠다. 동쪽의 사, o, x 성씨가 당신을 도우니 찾아보라. 지극 신경 쓰이는 일은 일단 잊고 접어들 것.



▶양띠
매사 할애 거머지라도 침착한 자세로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진행하면 서광이 찾아 든다. 인내를 가지고 추진하면 길해질 것이다. 변동하려고만 말고 지금 그 상태에서 잘 보완하는 것이 낫다. 나를 편하게 해줄 행운의 여신은 동쪽에 있다.



▶원숭이띠
마음이 약해서 좋은 일을 하고도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나 오늘 은 순탄한 편이다. 직장인은 업무 성과로 호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답답하기만 하구나. 내 일이 아닌 다른 이가 지극 생각하지만 자체하고 자신을 다스려라.



▶닭띠
계획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행함이 좋겠다. 대인관계에서는 특별히 결손한 태도가 요구되며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돼지, 용, 소띠에게 최선을 다할 것. 가족의 의사도 존중하되 결국은 스스로에게 달렸음을 잊지 않아야



▶개띠
자만심을 흥을 물고 온다. 자신을 알고 뒷사람을 대하면 정신적인 만족을 얻으며 앞길도 밝아진다. 스스로를 너무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 남, 서쪽 사람에게는 사정을 말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라. 무엇보다도 분수를 지켜야 할때.



▶돼지띠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매사가 순조롭다. 애정을 품고 하는 일이 서서히 실적을 내고 회의로 변하니 결손한 자세로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대처하라.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필요한 날이다. 친구의 속삭임으로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